

광주FC, 우승에 한 발 더

K리그2 34라운드 원정 서울이랜드에 4-0 승리 10경기 연속 무패 행진

광주FC가 승리로 10경기 연속 무패를 달렸다. 서울이랜드전 무패 행진도 이어갔다.

광주가 지난 20일 목동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K리그2 34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헤이스의 멀티골을 앞세워 4-0 승리를 거뒀다. 광주는 이날 승리로 19승 9무 3패(승점 66)를 기록하면서 '조기 우승'에 한 발 더 다가갔다.

전반 16분 서울이랜드 김정수의 터닝 슈팅에 이어 황태현의 슈팅을 골키퍼 김경민이 막아낸 뒤 광주가 역습 기회를 잡았다.

헤이스가 공을 몰고 서울이랜드 진영 왼쪽으로 진입했고, 문전으로 달려들던 엄지성에게 패스를 했다.

엄지성이 페널티박스 안에서 김선민에 걸려 넘어졌고 페널티킥이 선언됐다.

이어 헤이스가 키커로 나서 골대 왼쪽 구석을 뚫으면서 선취점을 만들었다. 이 경기 전까지 9골을 기록했던 헤이스는 시즌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다.

전반 29분에는 이근희가 골 갈증을 풀었다.

중원에서 이민기가 남겨준 공을 잡은 이근희가 상대 골키퍼 김형근을 제치고 원발로 골망을 흔들었다.

시즌 초반 광주의 핵심 공격수 역할을 했던 이근희는 3월 16일 서울이랜드를 상대로 시즌 3호골을 기록했다. 하지만 3월 26일 충남아산전에서 부상을 입으면서 공백이 있었고, 이 경기를 통해서 4호골을 장식했다.



광주FC의 헤이스가 지난 20일 서울이랜드와의 원정경기에서 드리블을 하고 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광주는 후반에도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후반 5분 헤이스가 원발 슈팅을 날리면서 추가 골 사냥에 나섰다. 헤이스의 슈팅이 골키퍼에 막혔고, 후반 13분 산드로의 슈팅도 골대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후반 23분 헤이스가 멀티골을 장식했다. 엄지성이 왼쪽에서 패인 슈팅이 골키퍼 맞고 나왔고, 공을 잡은 헤이스가 원발로 공을 찍어 골망을 흔들었다.

그리고 후반 27분에는 앞서 몇 차례 아쉬움을 삼켰던 엄지성이 환하게 웃었다.

산드로의 패스를 받은 엄지성이 골키퍼를 마주

하고 오른발로 공을 때리면서 골대를 갈랐다.

후반 30분 서울이랜드 아센호의 슈팅에 광주 골망이 흔들렸다. 하지만 슈팅 과정에서 아센호의 파울이 선언, 광주의 실점은 올라가지 않았다.

이후 광주는 서울이랜드를 봉쇄하면서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앞선 부천·전남과의 두 경기에서 경기를 주도하고도 연달아 무승부를 기록했던 광주는 시원한 골 퍼레이드 속에 기분 좋은 대승을 기록했다. 또 이날 승리로 광주는 서울이랜드전 9승 3무를 기록, 절대 우위를 이어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1일 강원 정선에 위치한 하이원리조트CC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하이원리조트 여자오픈 2022' 대회에서 우승한 한진선이 우승 트로피를 들고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KIA 위기의 불펜에 '좌완 단비'

김정빈 1점 승부에서 '믿을맨' 이준영 평균자책 1점대 역투



KIA 타이거즈의 좌완 가뭄에 단비가 내렸다. KIA는 양현종, 이의리, 토마스 파노니, 선 놀린 등 4명의 좌완으로 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하고 있다. 좌완으로 선발 4자리를 채웠지만 정작 불펜에서는 왼손으로 공을 던지는 투수가 귀하다.

KIA는 매년 좌완 불펜 가뭄에 시달렸고, 올 시즌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으면서 이준영이 나홀로 좌완으로 불펜에 대기한 날이 많았다. 하지만 최근 분위기가 좋다.

트레이드를 통해 영입한 김정빈이 기대했던 역할을 해주고 있고, 경험을 더한 이준영은 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1위 SSG 랜더스를 상대로 한 1점 차 승리, 최악의 연장전 패배 뒤 분위기를 바꾼 승리에 김정빈이 있었다.

KIA는 지난 17일 SSG를 상대로 4-3 신승을 기록했다.

이 경기 전까지 KIA는 올 시즌 SSG에 2승 10패로 열세였다. 또 리그를 대표하는 김광현이 선발로 나서기 때문에 어려운 승부가 예상됐지만 1회부터 나성범의 3점포가 가뭄됐다.

하지만 KIA는 3-0으로 앞선 8회초 불펜 난조 속 내야 실책까지 겹치면서 3-3 동점을 허용했다. 승부가 원점으로 돌아간 8회초 2사 만루에서 김정빈이 출격했다. 추신수를 상대로 김정빈은 5구째 슬라이더로 핫스윙 삼진을 만들었다.

급한 불을 끈 KIA는 8회말 다시 리드를 잡으면서 4-3으로 경기를 끝냈고, 김정빈은 승리투수가 됐다.

19일 NC전에서도 김정빈에게 시선이 쏠렸다. KIA는 전날 연장 승부 끝에 8-14 역전패를 당했다. 이날 소크라테스가 연타석 홈런을 날렸지만 11회에만 7실점을 하면서 악몽 같은 패배가 남았다.

그리고 KIA는 20일에도 5-0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선발 이의리의 난조와 내야진들의 실수 연발로 4회초 6실점을 하는 등 어려운 경기를 펼쳤다. 5-8로 뒤진 7회초 김정빈이 출격해 다시 한번 분위기를 바꿨다.

김정빈은 앞선 타석에서 홈런을 기록했던 노진혁을 핫스윙 삼진으로 돌려세웠다. 이어 김주원을 1루수 플라이로 잡아냈고, 이명기의 방망이를 헛돌게 하면서 삼자범퇴를 만들었다.

김정빈은 박민우-손아섭-박건우를 상대로 8회초 삼자범퇴로 정리하면서 뒷심싸움에 힘을 실어 주었다.

그리고 이날 경기는 연장 10회 1사 1-2루에서 나온 이창진의 끝내기 홈런으로 KIA의 12-9, 승리로 마무리됐다.

김정빈이 안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불펜 운영의 폭이 넓어졌다. 김정빈도 자신감을 찾으면서 기대감을 키운다.



이준영



김정빈

김정빈은 "2군 갔다 와서 결과가 괜찮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 잘했다기보다는 서재웅, 광정철 코치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신다. 멘탈이 좋아져서 마운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추신수 선배랑 승부할 때는 너무 간절했다. 상대가 (전정민) SSG라서 더 간절하기도 했고, 간절한 만큼 더 침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정빈은 "2군 갔다 와서 결과가 괜찮은데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혼자 잘했다기보다는 서재웅, 광정철 코치님이 도움을 많이 주시고 계신다. 멘탈이 좋아져서 마운드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것 같다"며 "추신수 선배랑 승부할 때는 너무 간절했다. 상대가 (전정민) SSG라서 더 간절하기도 했고, 간절한 만큼 더 침착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한진선 '130전 131기'

KLPGA 하이원리조트 오픈에서 6년 만에 첫 우승

한진선(25)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131번째 경기에서 첫 우승의 감격을 누렸다.

한진선은 21일 강원도 정선군 하이원리조트 컨트리클럽(파72)에서 열린 여자오픈(총상금 8억원) 최종 라운드에서 4언더파 68타를 쳐 최종 합계 11언더파 277타로 우승했다.

최예림(23)과 유해란(21)을 2타차로 따돌린 한진선은 2017년 데뷔 이후 6번째 시즌에 우승을 신고했다.

무려 131경기째 만에 우승한 한진선은 지금은 KLPGA 전무이사로 재직 중인 김순희와 함께 역대 최다 출전 첫 우승 기록 공동 4위에 이름을 올렸다.

최다 출전 첫 우승 기록은 236경기 만에 정상에 올랐던 안승희(32)가 갖고 있다.

한진선은 2년 차이던 2018년 준우승을 두 번 차지하는 등 6시즌 동안 5위 이내에 10번이나 진입하며 정상급 경기력을 선보였지만, 결정적인 승부

처에서 힘을 쓰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한진선은 이번 대회에서는 최종 라운드에서 막판에 버디 3개를 몰아치며 역전극을 펼쳐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3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한진선은 4번 홀(파5)에서 3퍼트 보기로 1타를 잃어 우승 경쟁에서 탈락하는 듯했다.

6번(파3), 8번 홀(파3) 징검다리 버디로 반등한 한진선은 13번 홀(파4), 14번 홀(파3) 버디로 선두로 올라섰고 17번 홀(파4) 버디로 우승을 예약했다.

우승 상금 1억4400만 원을 받은 한진선은 상금 랭킹 22위(2억7408만 원)로 올라섰다.

3타차 단독 선두로 최종 라운드에서 나서 13년 만에 KLPGA투어 8번째 우승을 바라봤던 '쌍둥이 엄마' 안선주(35)는 체력 저하 탓인지 5타를 잃고 공동 8위(5언더파 283타)로 밀렸다.

/연합뉴스

해리 케인, 리그 185호 골...단일 클럽 최다득점 신기록

토트넘 1-0 승리 이끌어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단일 클럽 최다 득점 신기록을 세운 해리 케인(토트넘)의 말이다.

케인은 지난 20일 EPL과 토트넘의 역사를 새로 썼다. 홈에서 열린 울버햄프턴과의 정규리그 3라운드에 선발 출전해 후반 19분 헤더로 1-0 승리를 결정짓는 골을 책임졌다. 케인의 리그 185호 골이었다.

EPL에서의 모든 득점을 토트넘 소속으로만 넣은 케인은 맨체스터 시티에서 184골을 넣은 셰르히오 아케로(은퇴)를 넘어 EPL 한 클럽에서 역대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로 우뚝 섰다.

케인이 토트넘 유니폼을 입고 모든 대회에서 넣은 250번째 골이기도 하다.

임대로 다른 팀에서 뛰었던 기간을 빼고 2009년부터 오직 토트넘 한 팀에서만 뛰어난 케인 축구 인생의 '이정표'라 할 만하다.

잉글랜드를 넘어 세계 최고의 골잡이 중 하나로 인정받는 케인이 정복할 다음 고지는 EPL 통산

최다 득점 기록이다.

이 부문 역대 1위는 블랙번과 뉴캐슬에서 260골을 넣은 앨런 시어러다. 웨인 루니(208골), 앤디 콜(187골)이 각각 이 부문 2, 3위에 올라있고, 케인이 4위다.

산술적으로만 따져 보면 케인이 시어러를 넘어서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 현재 29세인 케인이 시어러처럼 35세에 은퇴한다고 가정할 때 앞으로 매 시즌 13골 정도를 넣으면 역대 1위에 오를 수 있다.

케인은 울버햄프턴과 경기 뒤 SNS를 통해 "아케로의 기록을 깨고 EPL 단일 클럽 최다 득점자가 된 나 자신이 매우 자랑스럽다"면서 "이게 끝이 아니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팀원들과 약속된 플레이로 기념비적인 득점을 올린 케인은 동료들에게 고마운 마음도 전했다.

케인은 "코치진, 그리고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이번 기록을 세울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